

지성·영표 빈자리 답답 했지만... '젊은 전사' 남태희 빛났다

조광래호 터키전 0대0 무승부

2011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정밀한 패스를 살려내지 못했고 답답한 상황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구심점도 없었다.

한국은 10일(한국시간) 터키 트라브존의 후세인 아브니 아카르 경기장에서 치러진 터키와 평가전에서 후반 14분 터키의 주장 엘레 벨로졸루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해 얻은 수적 우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득점 없이 비겼다.

더구나 한국은 터키보다 1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포백(4-back)이 자주 무너지며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는 등 공수 전반에 걸쳐 박지성과 이영표(할 합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조광래 감독은 이날 경기에 지동원(전남)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그 뒤를 박주영(AS모나코)이 지키게 했다. 좌우 날개는 구자철(볼프스부르크)과 남태희(발랑시엔)가 선발로 출격했다.

구자철은 지난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무릎이 좋지 않던 박지성을 대신해 왼쪽 공격수 자리에 서봤던 경험이 있지만 대회 이후 볼프스부르크 입단을 위해 장거리 비행을 하느라 휴식이 부족했던 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다.

쐐기통 공격력이 살지 못하는 조광래 감독은 전반 중반 이후 박주영을 원톱으로 세



지난 10일 오전 (한국시간) 터키 트라브존스포르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터키와의 평가전에서 남태희가 터키 이스미일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고 지동원을 왼쪽 날개로 내렸고, 구자철에게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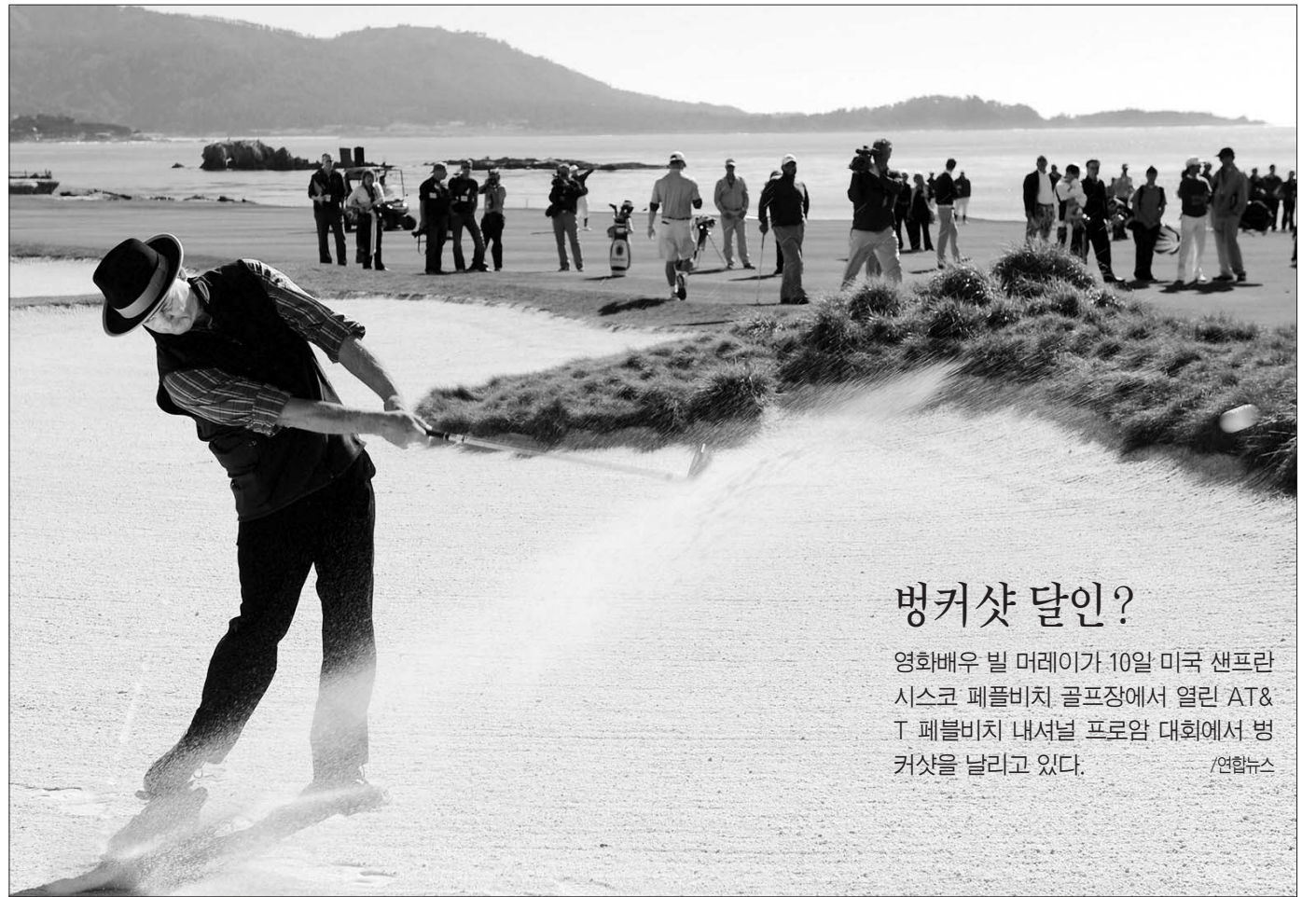
하지만 전방을 책임진 4명의 공격수 모두 강력한 몸싸움보다는 개인기를 앞세운 스타일이라 터키 수비진의 강한 압박을 제대로 뚫지 못했다. 전반 26분 남태희의 중거리 슈트 때까지 단 한 차례 슈 기회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터키의 중원 압박에 시달렸다.

답답한 경기가 이어질 때 폭발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하며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박지성의 역할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포백도 이영표가 떠나고 차두리가 컨디션 난조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홍철(성남)-이정수(알사드)-황재원(수원)-홍정호(제주)의 낯선 조합으로 나섰다.

홍철은 이영표의 배반인 12번을 물려받아 왼쪽 풀백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중앙 수비를 주로 맡아왔던 홍정호는 오른쪽 풀백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영표가 맡아왔던 수비라인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조직력 불안으로 이어졌고, 결국 좌우 측면이 자주 뚫리며 중앙 수비를 맡은 이정수와 황재원은 볼을 건어내는 데 집중해야만 했다.

나날 29일 동유럽의 강호 몬테네그로와 평가전을 앞둔 조광래 감독은 공수의 핵심을 맡아온 박지성과 이영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선의 전력과 가장 적절한 대체 요원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 /연합뉴스



벙커샷 달인?

영화배우 빌 머레이가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롤비치 골프장에서 열린 AT&T 페롤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에서 벙커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수선수 위해 10억 기금 조성

광주시체육회가 올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1학교 1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팀을 신설, 스포츠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체육회는 10일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체육회장인 강은태 시장과 전국체전참가종목 가맹경기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해 2011년 5대 핵심사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1처2부5팀의 조직은 그대로

두부 월드컵팀을 없애고 기획팀을 신설했으며, 지역 내 295개교 중 144개교만이 운영 중인 청소년스포츠클럽을 전 학교로 확산시켜 우수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전국체전 성적 우수 직장팀 종목 개편 ▲고득점 전략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수선수 성적위주의 성과급 인센티브제 확대 등을 전략을 수립하고 체육 인재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해 매년 초·중·고등학교생 80명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광주시체육회 정기 총회 기획팀 신설 마케팅 강화

위해 다음달 내에 TF팀을 구성하고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선수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1일 지도하는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오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체육회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상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댄스스포츠와 공수도 종목이 가맹단체로 승인돼 경기단체가 기존 43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났다. /연합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지성 같은 스타 플레이어 더 나와야"

히딩크 "한국팀 투지 넘쳐"

"한국 대표팀은 아주 잘 훈련돼 있고 체력과 투지가 넘친다. 젊은 선수 중에서 박지성 같은 스타가 나온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스 히딩크 터키 대표팀 감독이 10년 전 자신이 이끌었던 한국 대표팀에 변함없는 애정과 조인을 보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태극전사의 '4강 신화'를 지휘했던 히딩크 감독은 10일 한국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0-0 무승부로 마친 뒤 "친선전이었지만 개인기도 좋고 체력도 뒷받침된 한국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때나 지금이나 한국 선수들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고 체력과 스피드가 강하다고 느꼈다"고 평했다.



다. 이어 "온 힘을 다해서 골을 만들어 내려는 투지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다"며 "예전에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 한국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좋아했는데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해 기쁘다"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하려면 박지성 같은 스타 선수가 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 본 한국은 평균적으로 좋은 팀이지만 박지성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았다"며 "박지성처럼 외국의 큰 리그에서 뛰는 스타 선수가 2~3명 더 나온다면 더 멋진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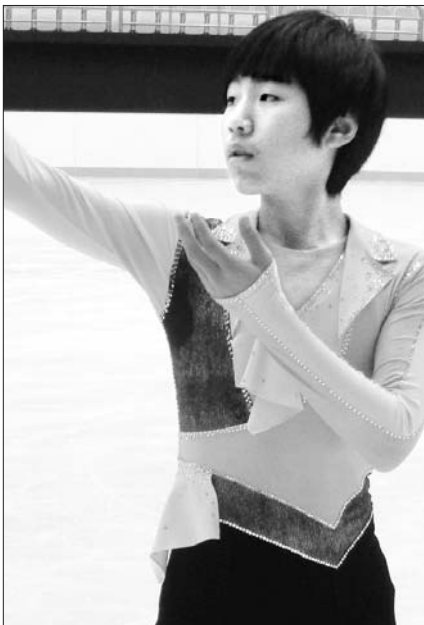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당시를 돌아보면 박지성도 보통의 좋은 선수들 중 하나였다"며 "오늘 경기에서 뛰 젊은 한국 선수 중에서도 그와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총장중 양현수 동계체전 피겨 금

피겨 스케이트의 양현수(총장중 2년·사진)가 제 92회 전국동계체전 사전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현수는 8일 강릉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피겨 싱글 D조 남중부 경기에서 28.86점을 기록, 부산영도중 송영진을 누르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정영주 코치는 "앞서 2006·2008·2010년 동계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전보다 점프가 더 높아지고 표현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첨단고 최우수단체상 대한불림협회 2010 유공표창

첨단고가 대한불림협회 2010 유공표창에서 고등부 최우수단체상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체전 3인조 우승 등에 빛나는 첨단고가 대한불림협회 고등부 최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최우수 신인상은 지난해 대한불림협회 전국불림대회 개인전 금메달 등을 거머쥔 심한솔(2년)에게 돌아갔다.

또 전호중 감독은 우수 지도자에 선정됐고, 지난해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세계청소년 불림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이룬 이승우 코치는 최우수 코치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연초 제조장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일곡지구

롯데점

SK주유소

500

금광아파트

코카콜라

해태제과

편의점

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부 41-0187289

cafe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